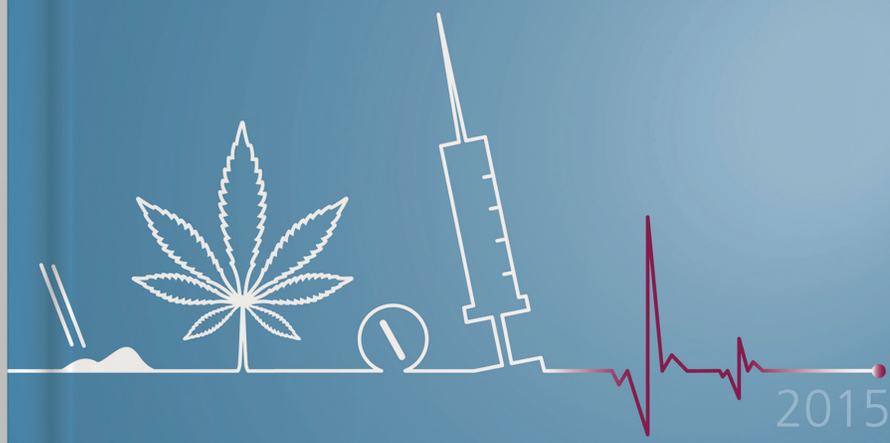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5 세계마약보고서



World Drug Report 2015

EXECUTIVE SUMMARY

UNODC Research

감수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한덕 팀장

세계불법마약 시장의 최근 동향 제시

세계마약보고서(World Drug Report)는 주요 불법 마약류의 생산, 밀거래, 소비 및 그와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매년 세계불법마약 시장의 최근 동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2015년 세계마약보고서에서는 첫째 아편계, 코카인, 대마초, 암페타민형 각성제(ATS) 및 신종 향정신성물질(NPS)의 수요공급뿐 아니라 이런 약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적으로 개괄하고 약물 사용예방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검토하며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일반원칙을 다룬다. 둘째 보다 광범위한 개발 의제의 맥락에서 대안개발이 농부에게 대체 생계수단을 제공하여 불법 작물 재배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약물의 생산, 사용 및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 문제는 약물 사용자 대다수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불법 약물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우려되는 사안이 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 양귀비 재배와 아편 생산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지만 국제 아편계 시장에 아직까지는 큰 반향이 없는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점점 복잡다변해지는 조직범죄집단이 법집행기관에 도전하는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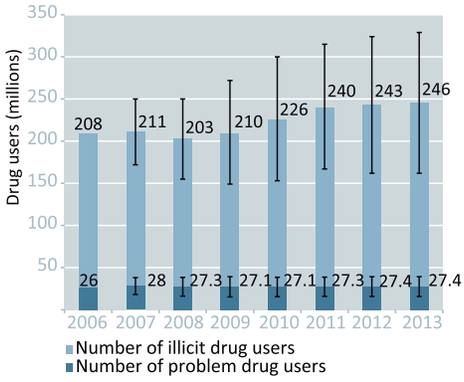
약물사용과 건강상 문제

2013년, 15~64세 인구 20명 당 1명인 총 2억 4천600만 명이 불법 약물을 사용했다. 전년도에 비해 300만 명이 증가한 것이지만, 세계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불법 약물 사용은 실제 안정적인 상태였다. 약물 사용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약물사용 장애나 약물의존으로 고통받는 문제 약물 사용자임을 고려하면 세계마약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더욱 분명해졌다. 즉 말레이시아 정도 국가의 전체 인구인 약 2천7백만 명이 문제 약물 사용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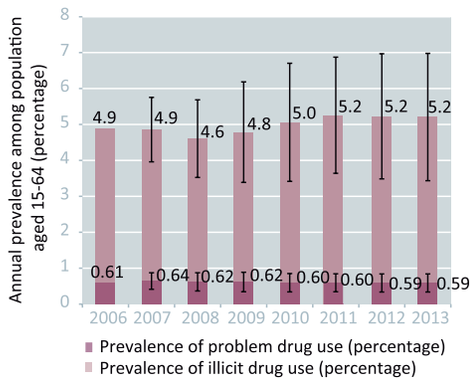
2013년, 이 문제 약물 사용자 중 거의 절반(1219만 명)이 마약 주사 사용자이고, 마약 주사 사용자 중 165만 명 정도가 HIV 감염자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약물 사용 장애와 그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 치료, 보호 관리하는 면에서 공중보건체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많은 국가의 매우 부족한 치료서비스 때문에, 세계 문제 약물 사용자 6명 중 1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 매년 마약관련 사망자 수(2013년 추정 187,100명)는 비교적 변함이 없다. 과다복용관련 사망은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복용의 결과로 많은 약물사용자들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있다.

국가별, 지역별로 약물사용 추세가 다양하지만, 입수할 수 있는 제한된 자료에 따르면, 아편계 (헤로인, 아편) 사용은 지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주로 미주와 유럽의 추세로 코카인 사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지만, 대마초와 의료용 아편계의 비의료적 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ATS 사용 추세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사용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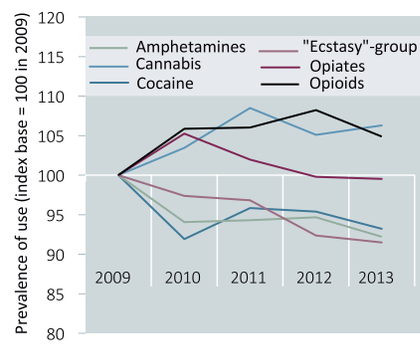
세계 마약사용자 추정치, 2006-2013



세계 마약사용 유병율 추정치, 2006-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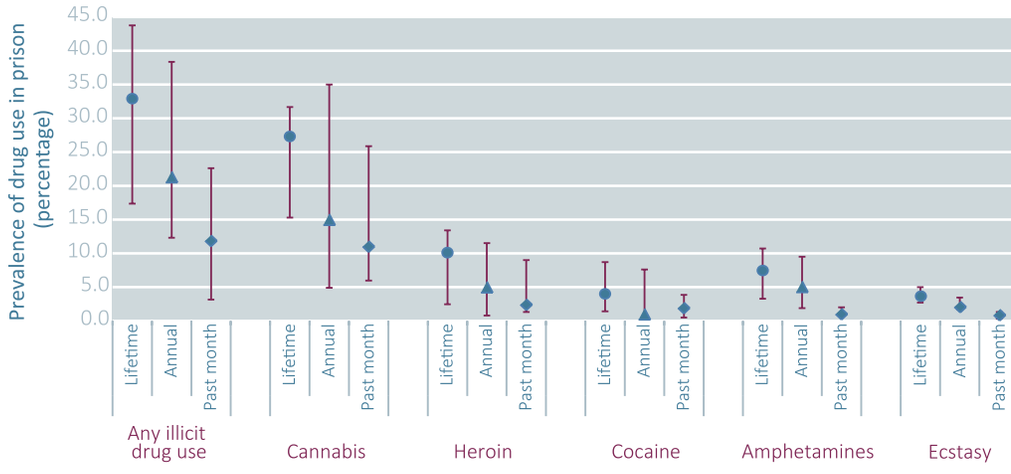


세계 다양한 마약류의 유병율 추세, 2009-2013



대마초는 지금까지는 교도소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었던 약물이다. 교도소는 위험이 높은 통제된 환경으로, 주사 마약사용 등 약물사용은 특히 불안한 상황에서 보통 이루어지고 있다.

교도소에서의 약물사용 평생 치료 및 현재 유병률(2000~2013년, 43개국의 6개 연구)



대부분의 약물사용자들은 대마초 사용 장애로 고통 받고 있고, 대마초가 가장 해롭게 될 수 있다는 증거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대마초 사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거에 따르면, 대부분의 약물사용자들은 대마초 사용 장애로 고통 받고 있고, 대마초가 가장 해롭게 될 수 있다는 증거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에서 대마초 사용 장애로 처음 치료시설에 들어온 사람의 높은 비율에서도 알 수 있다. 입수할 수 있는 제한된 정보에 따르면, 약물사용으로 치료를 받은 아프리카인 중 약물 유형별로 대마초가 1위였다.

대마초는 지금까지는 교도소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었던 약물이다.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제한되었지만, 수형자의 1/3이 감금 중 적어도 한 번은 약물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교정시설에서의 평생 및 최근(지난 몇 개월 사이) 헤로인 사용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 보다 훨씬 높았다. 교도소는 위험이 높은 통제된 환경으로, 주사 마약사용 등 약물사용은 특히 불안한 상황에서 보통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왜 교도소 환경이 감염성 질환, 특히 HIV, C형 간염 및 결핵의 수준이 높고, 예방과 치료에 한계가 있는 곳으로 특징지어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교도소에서는 혈액 매개 바이러스에 접촉할 위험이 높다.

ATS 사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치료수요는 높지만 ATS 사용 장애 치료에 대한 전문성은 아편계 사용 장애 치료에서의 전문성과 동일한 정교한 수준까지 오르지 못한 아시아에서 ATS 사용율이 비교적 높은 것이 그 원인일 것이다.

NPS는 국제적으로 통제되는 약물의 대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마약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PS는 공중보건 및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NPS의 잠재적 유해에 대한 정보나 조사연구는 부족하지만, 메페드론(mephedrone) 등 500종의 NPS 유통(proliferation)은 약물 사용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치료 수요를 높이고 있다.

코카인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우려하는 기본 마약인 반면, 아편계 사용은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마약이다. 이는 아편계 사용과 마약 주사 사용, HIV, AIDS, 및 과다복용 사망 간의 관계를 보여주며, 아편계 사용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약물 사용으로 인한 치료 입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약물 의존자의 재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약물 의존의 규모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약물 의존에 대한 빠르고 간편한 치료법은 없다. 약물 의존은 만성질환이며, 다른 만성질환과 같이 만성질환자는 평생 동안 취약하며 장기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약물사용의 시작(혹은 약물사용 장애로 전환될 가능성)을 예방하는 많은 개입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인적 환경적 취약점을 다루는 경우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취약점은 대개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회적 구조적 장벽들로 여성의 약물 사용으로 인한 치료에의 접근은 어려울 것이다. 세계적으로 3명의 약물사용자 중 1명이 여성이지만, 치료를 받고 있는 5명의 약물사용자 중 1명만이 여성이다. 많은 증거에 따르면, 약물사용 시작, 지속적인 사용, 약물사용관련 문제의 악화와 관련된 사회적 생물학적 요소들은 남성과 여성 간에 상당히 다르다고 한다.

2013년이나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처방 아편계 및 신경안정제를 오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대마초, 코카인, 암페타민을 사용하는 여성보다 남성이 주사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 HIV 유병률이 세 배 더 높았다.

신경안정제와 처방 아편계를 오용하기 시작하면 정기적이거나 상습적인 사용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은 다른 약물과 비교해 비교적 높으므로, 이것은 여성에게 특히 우려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주사 마약사용자 중 HIV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주사 마약을 사용한 여성은 주사 마약을 사용한 남성보다 HIV 감염에 더 취약하고 HIV 유병률은 주사 마약을 사용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다. 2015년까지 주사 마약사용자 중 HIV 감염을 50% 감축하겠다는 2011년 HIV 및 AIDS에 대한 정치선언(2011 Political Declaration on HIV and AIDS)에서 설정된 목표 달성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 주사 마약사용자 중 새롭게 진단된 HIV 사례건수가 대략 10% 감소하였지만(2010년 110,000건에서 2013년 98,000건으로), 이 목표는 달성된 것 같지 않다.

HIV 및 C형 간염 등 감염성 질환의 전파와 약물 과다복용은 비교할 수 있는 일반인의 동일 연령 및 성별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망률보다 거의 15배나 더 높이 주사 마약 사용자를 사망하게 하는 위험요소 중 일부일 뿐이다.

약물의 과다복용은 전혀 치명적이지 않다. 다양한 연구들에서 과다복용 20–25건 중 단 한 건만이 치명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치명적이지 않은 과다복용은 보고되지 않았고, 약물사용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다복용이 계속되면서 사망위험은 높아지게 된다.

마약 공급과 시장

대마수지 생산은 북아프리카, 중동, 서남아시아의 몇 개 국가에 국한되어 있으나 대마초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다. 남미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 코카나무 재배를 맡고 있고, 서남아시아(아프가니스탄)와 동남아시아(주로 라오스와 미얀마)에서는 불법 양귀비의 대량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ATS 제조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만, 세계 모든 지역에서 ATS 제조에 대한 보고가 있다.

불법 작물을 재배하고 마약을 제조하는 지역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불법 마약시장과 마약이 밀수되는 경로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마약 등 각종 제품의 불법 판매로 사용되는 익명의 온라인 시장, '다크넷(dark net)'은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며 법집행과 마약 밀거래에 시사한 바가 크다. 이런 역동적인 측면의 고전적인 예는 아편계 밀수에 사용되는 경로가 계속 바뀌어 아프가니스탄 헤로인이 새로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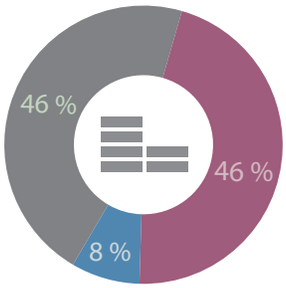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 헤로인이 유럽 및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유지로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약물 의존은 만성질환이며, 다른 만성질환과 같이 장기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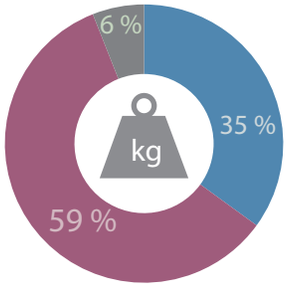
헤로인이란?

몰핀을 화학적으로 변형하여 보다 강력하게 만든 것으로 냄새가없고 쓴맛을 지니며 물에 잘 녹는 흰 분말이다. 남용자들은 주로 정맥 주사하거나 코로 흡입,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교통수단별 개인 마약 반입물 총량에 대한 비중



교통수단별 마약반입 총량의 비중



최근 일부 아프리카 국가 특히 동아프리카에서 보고된 헤로인 압수 량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의 압수만 보아도 아프가니스탄 헤로인이 대량으로 인도양을 건너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로 수송되는 것이 더 일상화되고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코카인을 밀수하는 환적(trans-shipment) 지역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으며, 동유럽은 경유지이면서 최종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밀수량은 적지만 코카인 시장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아프리카는 예전에는 연결되지 않았던 메스암페타민 시장을 잇는 새로운 밀거래 경로로, 남아프리카나 유럽을 거쳐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로 밀수되는 메스암페타민의 확고한 공급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메스암페타민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는 한편, 북미와 유럽의 메스암페타민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미얀마 산 아편계가 동남아시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이나 이란을 거쳐 남쪽으로 아프가니스탄 헤로인을 밀수하는 통로(conduit)인, 소위 '남방 경로(southern route)'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헤로인을 유럽으로 밀반입하는 발칸 경로를 이용하는 밀거래 네트워크는 카프카스(Caucasus)를 통과하는 새로운 경로를 시험하고 있으며, 이란보다는 이라크를 통해 밀거래되는 헤로인이 있는 상황이다.

마약 밀거래 경로도 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한 종류의 마약만 밀거래하였던 조직범죄집단이 다양화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일례로 과거에는 헤로인 밀거래만 집중했던 집단이 대마수지와 메스암페타민 밀거래를 계속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밀거래 경로 자체의 초점도 어느 정도 변화되고 있다. 한 종류의 마약을 밀수하는데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경로가 이제는 다른 마약을 밀수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헤로인과 코카인의 경유 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특정 마약의 중추 경유지(transit hubs)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점점 진화되고 있지만, 어떤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마약류의 경유 지역으로 점점 더 이용되고 있다.

합성마약 : 암페타민형 각성제와 신종 향정신성물질

세계 합성마약 시장은 메스암페타민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 시장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다.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서 약물사용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의 대다수가 메스암페타민 때문이며, 결정형 메스암페타민 사용이 북미와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이래 급증하고 있는 압수는 세계 ATS 시장의 급속한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에 ATS 압수 총량은 거의 두 배가 되어 144톤이 넘었다. 이것은 UNODC가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래 최고 수준이며 2013년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압수 자료에 따르면, 세계 '엑스터시' 시장은 국제 암페타민 및 메스암페타민 시장보다는 작고 몇 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국제 '엑스터시' 시장의 동인(driver)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에 미주의 시장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주 지역에서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엑스터시' 압수가 81% 감소했다.

가장 큰 엑스터시 시장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이지만 이 지역의 2013년 '엑스터시' 압수 량이 감소했다. 메페드론(mephedrone)과 다른 NPS가 대용품이 되고 있어, 유럽 몇몇 국가의 '엑스터시' 시장은 감소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메페드론과 합성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의 사용이 일부 시장에서 감소하였지만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NPS의 주사 사용 등 우려스러운 방법의 개발뿐 아니라 광범위한 NPS의 출현을 보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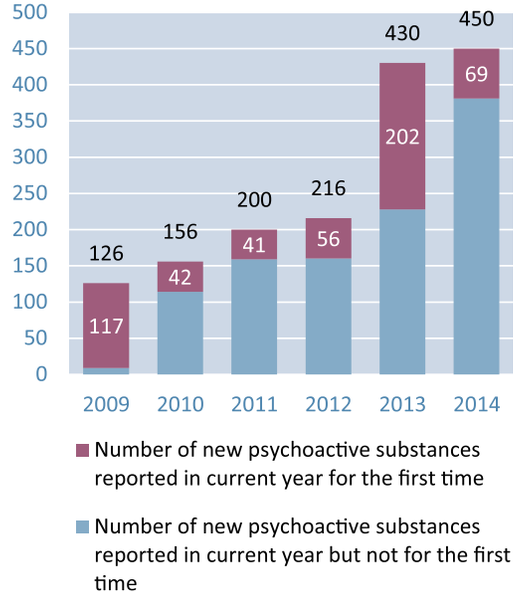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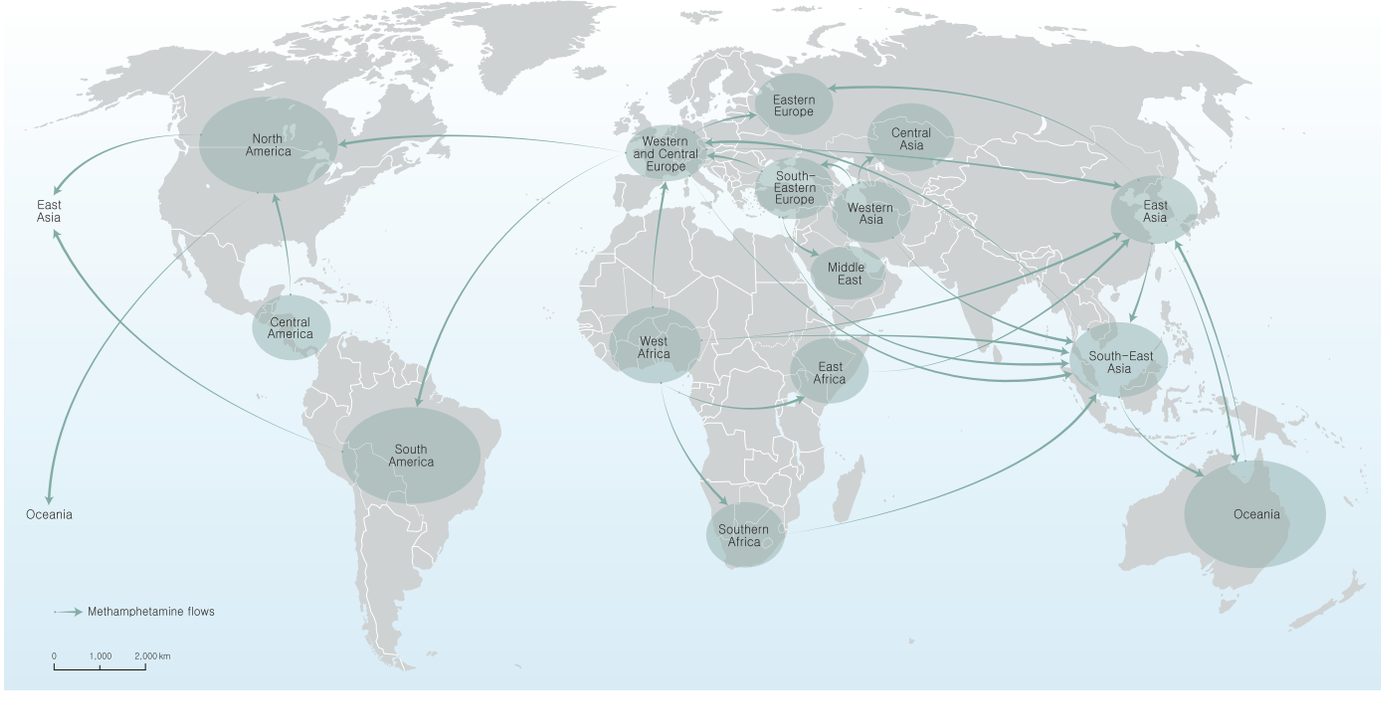
주사 마약 사용과 복합 약물 사용이 최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늘 부족하다. 이런 특정한 형태의 약물 사용이 약물사용에 대한 치료제공자 및 보건관리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심각한 도전과제를 줄 수 있다.

현재 유통되는 NPS의 숫자, 다양성, 일시적인 속성은 많은 NPS 사용 유병율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런 어려움들은 또한 NPS 규제 및 NPS와 관련된 보건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NPS가 양과 다양성 면에서 시장에서 계속 확산될 것이라고 여럿 국가들이 보고하고 있다.

2014년 12월까지, 95개 국가 및 지역에서 총 541종의 NPS를 UNODC 조기경보 자문회의에 보고했다.

합성 카나비노이드는 2014년 보고된 NPS의 주종이다(39%). 그 다음이 페네틸아민(18%)과 합성 카티논(15퍼센트)이다. 세계적인 NPS 수의 증가로, 합성마약시장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2014까지 새로운 향정신성 물질의 수량 증감



2011-2013년, 암페타민의 전세계 유입 · 흐름 및 경로